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최선

## 진안군,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실과소, 읍·면 종합행정담당부서가 협력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 및 배부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정확한 접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7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7월 10일~11일(토·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연다.

관내 신청대상은 이달 21일 24시 기준 약 2만3,338명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진안군(일부 업종제외)에서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은 일괄 소멸된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행렬에 동참을 원하는 경우에는 카드 신

청 시 진안사람장학재단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어 따뜻한 선행에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송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백신접종도 인구대비 48.2%로 타 시·군 대비 월등한 실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회생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단 한 명의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지급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신속 지급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 실시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북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7월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1일 24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대상으로 1인 1카드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내달 5일부터 지급된다.

장수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구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음 달 14일까

지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별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한다.

현장 방문 신청 교부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

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통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방법은 읍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계획했다"며 "신속한 지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쓰러진 80대 이웃 살린 시장마을 이희술 이장, 유공자 표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귀가하던 중 쓰러진 80대 이웃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위험에서 구한 이장이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22일 군수실에서 백신 접종 후 쓰러진 이웃을 구해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솔선수범한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이희술(62) 이장에게 코로나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희술 이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0분께 읍내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모(86) 할머니를 발견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 당시 배운 심폐소생술을 1~2분간

때까지 응급처치를 지속한 후 무사히 인계했으며 박 할머니는 이 이장의 빠른 대처로 위태로운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이희술 이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표창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활동 참여와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주민의 목숨을 구한 이희술 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주민들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이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영수 군수는 22일 군수실에서 백신 접종 후 쓰러진 이웃을 구해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솔선수범한 시장마을 이희술 이장에게 코로나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실시해 목숨을 살렸다.

박 할머니는 잠시 후 호흡이 돌아왔고, 이 이장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미흡”

##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시설물 운영에 행정 적극 개입해야”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시설물 운영에 행정 적극 개입해야”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시설물 운영에 행정 적극 개입해야”



실을 감안하면 운영·관리를 주민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은 22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했다. 윤정훈 의원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상향식 사업운영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모델로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사업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며 “무주군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6개 읍·면 전체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개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정훈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을 분석해보면 사후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상황적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주체는 해당 지구의 주민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먹고살기 급급한 농촌 현

실을 감안하면 운영·관리를 주민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달라져야 사업취지도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측면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훈 의원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을주민의 적극 참여와 주민맞춤형 문화복지행정서비스 제공,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과 선도모델 창조,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운영관리방안의 핵심요소로 제시했다.

윤정훈 의원은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무주군도 지역개발사업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는 이날 정례회에서 5분 발언과 관련해 윤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축산분야 폭염대응 상황실 가동

무주군이 여름철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폭염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빨라진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폭염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축산업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차원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무주군청 농촌정책과 축산팀에 ‘폭염대비 상황실’을 가동하고 농가 폭염대비 대응과 비상연락망 구축,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억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비롯한 환경기, 자기발전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11명으로 구성된 예방요원을 각 축산농가에 투입해 방역취약지구 가축질병 예방과 농가별 전화 예방 등을

집중 실시하면서 방역관리요령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축사 내부 소독시설을 이용한 물 분무로 축사 내부에 온도를 조절하고 축사 내·외부 정기적 소독, 폭염피해 발생 시 읍·면 및 군에 피해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여름철 폭염피해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축산분야 하절기 폭염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로 축산 농가들에 대한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집중 관리대상 축산 농가는 한옥우 292농가 등 모두 303농가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2018년 4농가 3,030두, 2019년 2농가 7두, 2020년 2농가 7두 폭염피해를 입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 가운데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14일 미만이면 2분의 1(50%)을 지원하며,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이다.

한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백신접종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면제

진안군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진안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숙박시설 성인/1일 기준 1만원, 다목적실 5만원)을 면제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COOV(쿠브) 모바일 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종이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종이증명서는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